

『국가부도의 날』과 『러브&팝』으로 바라본

경제붕괴 이 후, 한국과 일본 '가장'의 표상

경희대학교 일본어학과

오경현

그림 1) 국가부도의 날의 '가장' 그림 2) 러브&팝의 '가장'



일본은 '버블경제'를 배경으로 한 영화가 그 간 몇 차례 개봉했었다.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영화로는 대표적으로 '버블로 고!! 타임머신은 드럼방식', '러브&팝'이 있다. 그러나 그간 우리나라의 IMF를 배경으로 한 영화는 찾아보기 힘들었다. 그런데 1997년, 그 때의 비극을 고스란히 담은 '국가부도의 날'이 최근 개봉했다. 따라서, 국가부도의 날과 러브&팝에 나타난 한,일 양국의 '가장'의 모습을 비교,분석하려고 한다.

먼저, '갑수'는 영화 국가부도의 날에서 당시의 평범한 가장을 상징한다. 공장장이었던 갑수는 협력업체와 줄 곧 현금으로도 거래를 하고, 그 만큼 신용도 좋았고 인품 좋은 인물이다. 그 덕에 작게 시작한 공장은 승승장구 성공할 수 있었고 백화점으로부터 대량 주문을 받아 납품을 할 기회도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경제 위기로 백화점이 망하기 시작하고, 곧 바로 휘청거렸다. 대량으로 자재를 납품하던 회사도 줄줄이 망해갔다. 급기야 납품업체 사장은 자살하고, '갑수도' 미쳐간다. '갑수'는 그럼에도 끝까지 '공장'과 '가정'을 지키려고 고군분투한다. 막중한 책임의 끝은 끝내 갑수로 하여금 현실의 눈을 뜨도록 한다. 이는 갑수 '개인'을 위한 변화가 아닌 '가족'과 '함께 일한 '동료'를 위한 선택이었다. 감독은 자신의 미래와 가족의 삶을 결정지을 권리를, 기득권 정치인이 말하는대로, 중립이기를 포기한 언론이 말하는 대로, 믿지 않을 것을 요구한다. 끊임없이 의심하고 끊임없이 공부하고 깨어있으라고 말이다.

또한 감독은 갑수가 빚을 갚지 못해 감옥에 있는 동료를 면회한 이 후, 거리를 걷는 장면을 현재의 거리처럼 묘사했다. 이는 관객으로 하여금 1997년의 갑수가 현재와 맞닿아있는 것처럼 느껴지도록 한다. 이는 위기가 우리의 삶에 언제든 찾아올 수 있고, 한 가장으로서의 '개인'의 문제가 아닌 우리 '사회'의 문제임을 일깨워 준다.

러브&팝에서는 수 많은 '가장'이 등장한다. 그러나 이들은 버블경제의 향수로, 다시 사회의 중심으로 역할하기를 바라지만, 직장과 가정의 붕괴로 그 바람과 반대로 중심이 아닌 주변에 속해 있다. 이들은 '가족'과 마음을 다해 대화를 하려고 하기 보다, 자신의 가치관을 주입하려는 가부장적 '가장'에 머물러 있다. 또한 이들이 경제붕괴 이 후 중, 고등학생의 시간을 돈으로 사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원조교제'가 사회적으로 성행했던 것은 '직장', '가정'을 위한 개인의 변화와 희생이 아닌 '일탈'로 그려진다. 독특한 카메라워크 기법으로, 그 가장들의 표정, 말투가 안타깝기 보다는 더욱 더 '간사하게' 느껴지도록 한다.

경제붕괴 이 후, 두 영화가 모두 혼란한 '직장'과 '가정'을 수습하는 주체로 '남성', '가장'을 내세우고 있다는 것은 아쉬운 부분이다. 왜냐하면, '여성', '가장'으로서 고군분투했던 당시의 수 많은 '어머니'들도 있을텐데, 지금까지 한,일 양국의 영화는 이러한 모습을 잘 표현하지 못 했다. 그러나 그 동안 한국 가족영화에서 남성은 위기에 직면했을 때 '이성적'이고 '강한'이미지로만 대개 소비되어져 왔는데, 국가부도의 날에서의 '갑수'는 막중한 책임감과 억눌린 개인의 슬픔 사이에서 그 어린 마음을 장면장면 잘 녹여내었다는 데에 의미가 있다. 반면, 러브&팝의 '가장'의 표상은 기존의 영화와 마찬가지로 보수적이고 폭력적으로 단순히 그려지는 데에 불과했다. 이 모습이 당시 일본 '가장'의 다수의 표상일지라도, 그 보수성과 폭력성을 표현하는 방식 혹은 다른 표상에 대한 논의가 이뤄지지 않고 영화에서 일반적, 소모적으로 다룬 게 조금 아쉬웠다.